

세종 · 충청포럼 2차 포럼 개최

-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지자체 대응방향 모색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 충청권 3개 연구원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 · 충청 권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지자체 대응방향을 모색을 주제로 18일 10시 30분 유성호텔에서 2차 포럼회의를 개최하였다.

세종 · 충청포럼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을 맞이하여 대전 · 충청권의 행정구역의 범위를 초월한 충청광역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및 국정변화에 맞춰 충청권의 현안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월 출범식을 갖고 공동의 과제 발굴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4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나누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창기 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종충청포럼이 출범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세종시라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고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 우리지역에 입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충청권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협력하고 문화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서간, 행정구역간 협력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우리 세종충청포럼이 앞서서 그 소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소연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들과 학계, 연구원이 힘을 합쳐 소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 오늘 자리가 매우 뜻 깊다”고 말하며, “정부3.0 관점에서 4개 시도 간에 더 실질적인 협력 부분을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내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에서 정부 3.0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재정의 역할 강화를 통한 사업부문의 합리화를 유도 하는 것”이라며 이날의 주제를 강조하였다.



〈세종충청포럼 2차포럼 모습〉

1주제발표에는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연구위원이 ‘복지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다 더발전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재정이 갖고 있는 규모적 한계로 인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며, 과연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재정이 갖는 의미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2주제발표에는 前전북대학교 교수이자 재정공학연구소소장을 맡고 있는 강인재 소장이 전북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토론시간에는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원의 낭비를 줄이는 방안, 충청권의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서로가 부족한 부분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4개 시도의 공동관심사,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광역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광역행정구역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세종 · 충청포럼은 앞으로 충청권 3개 시 · 도 연구원 및 세종특별자치시간 포럼운영의 정례화 추진을 통해 항시적 연구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식공유 및 확산을 통한 권역 발전 극대화, 충청권 발전을 위한 미래 여건 및 성장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발굴 및 연구협력체계 구축, 지역협력기반 구축으로 충청권 공동발전 도모, 충청권 상생전략 방안 공동연구로 지역발전 선도,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 충청권 공동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 대인 의견수렴 및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2013년 1월 세종충청포럼 출범 모습〉

“ 기호유교문화권개발, 충청권 뭉쳐야 ”

-기호유교문화권개발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개최-



26일 오후2시 원광대치대대전병원 대강당에서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초려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기호유교문화권개발을 위한 '기호유학과 충청 5현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학술심포지움이 열려 300여명의 충청유림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최근 충청권이 세종시 원안 추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 및 기능지구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신적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어 기호유교문화개발이 절박한 상황에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협력이 미진하다는 판단 아래 충청권 지자체는 물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이창기 의장(대전발전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세종시라는 행정수도를 바탕으로 충청인들이 충청권의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역사적인 획을 긋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민관이 협력하여 기호 유교문화의 재현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를 만들어 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날 지방 30시대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갖고 있는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소통해서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행사는 충청권과 민관을 하나로 묶어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의 신호탄이 되어줄 것을 확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진행된 발표에서는 한남대 한기범교수가 '충청권 정체성과 초려 이유태 선생의 개혁사상과 출처대의', 충북대 김상기교수가 '기호유교문화권 계승과 우암 송시열선생의 역사적 평가', 충남대 황의동교수가 '노서 윤선거선생의 사상과 학문세계, 지두한 국민대학교수가 '기호유학에서 차지하는 동충당 송준길 선생의 역할과 비중', 한국전통문화대 이도학교수가 '북벌밀지 5신으로서 사남 유계 선생의 평가'라는 주제발표와 참여자 전체의 토론이 있었다. [d](#)

“ 2013 제2차 대전가족공동체포럼 ”

- 「2014년 대전광역시 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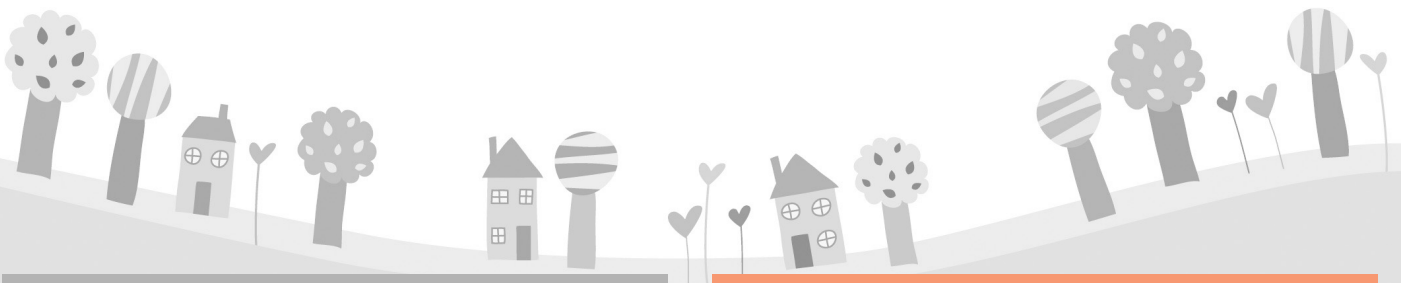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3 제2차 대전가족공동체 포럼을 「2014년도 대전광역시 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의 주제로 가족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지역가족복지 활동가, 가족관련 기관 종사자, 교수, 연구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기본방향 및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상의 5가지 정책과제에 따라, 2014년 대전광역시가 추진할 가족정책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추진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전문가 참여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전문가가 참여 의사결정 방식인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을 활용하여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사)디모스의 정완숙 대표와 함께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이해하고, 참여 모둠별 주제에 따른 2014년도 가족정책 비전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심화토론을 통한 분야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 6기를 맞이하여 가족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고, 가족정책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가족정책 추진 방향 선정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포럼 문의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042-530-3550)로 할 수 있다. [d](#)



“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도시안전을 위한 사회서비스디자인 1, 2차 세미나 개최 ”

-대전시, 범죄예방을 위한 서비스디자인을 시작하다-



〈도시안전을 위한 사회서비스디자인 1차 세미나〉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 과 Design Container가 공동으로 주관한 도시안전을 위한 사회서비스디자인 1차 세미나가 범죄예방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의역할 이라는 주제로 3일 오후 3시 구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범죄예방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분야에서의 서비스디자인 도입방안에 대한 담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1차 세미나에서는 최근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사례인 염리동 소금길과 청소년 범죄예방디자인 사례인 공진중학교를 직접 계획 및 디자인한 (주)팀인터페이스 이성혜 대표와 (주)샘파트너스 이창호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여 보다 현실감 있는 강의가 되었다.

대전광역시의회 광영교 의장은 축사에서 "한정된 행정예산과경찰력으로는 늘어나는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OPTED와 시민참여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OPTED는 대전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에서도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을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발표에 이어서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의 사회로 백철 배재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임윤택 한밭대 교수,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 대전시 안전총괄과 윤중준과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도시안전을 위한 사회서비스디자인 2차 세미나〉

염리동 소금길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거는 4대사회약 근절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염리동은 골목길이 좁고 어두워 어둠이 내리면 주민들이 집 밖에 나오길 꺼릴 정도로 범죄가 잦은 지역이었다. 경찰청이 지정한 161개 시민보호치안강화구역 중에서도 대책미련이 시급한 곳으로 꼽혔다.

23일 2차 세미나에서는 광주 서비스디자인 발표를 통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디자인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공공분야에서 서비스디자인의 도입방안과 안전도시에 있어 사회서비스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안전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으며, 배재대학교 백철 교수, 대전디자인기업협회 이용훈 회장, 대전총청 디자인기업협동조합 하현숙 이사, 디자인코리아유치위원회 김관기 사무처장, 921 그래픽스 최동석 이사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나누었다.

본 행사를 주관한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도시 계획(뉴타운 등)이나 건축물(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는 기획과 설계 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지역, 특히 염리동처럼 재개발을 해야 할 정도의 취약 지역에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OPTED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아이디어(Design Thinking)가 필요하고 디자인 결과물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며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2013년 제2차 대전경제교육센터 강사 워크숍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는 12월 20일(금) 대전경제교육센터의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교육성과 발표와 교육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대전경제교육센터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교육사랑, 대전소비자연맹, 대전중노년교육문화센터, 대전청소년 교육연구원, 소비자시민모임 등 대전경제교육센터 강사 25여명이 참석하였다.

2013년 기존사업 8개와 신규사업 4개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결과 보고 및 차년도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취약계층 교육 강화, 강사양성 및 강사역량 강화, 교육 평가 체계 마련 등 2014년도 대전경제교육센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4년 대전경제교육센터의 교육 사업 운영 방식, 홍보 및 평가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교육체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경제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실천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강조 되었다.

“ 대청호 관리방안 세미나 ”



20일 오전 10시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대청호오백리길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창기 원장을 비롯해 대전발전연구원의 문경원·김용동 선임연구위원, 임종묵 사무처장과 대청호 보전운동본부 이근희 사무처장,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이근희 연구원, 대전 마케팅공사 이상철 과장,

대전시 공원녹지와 신성순 계장, 관광산업과 고재봉 계장, 대덕구 공원녹지팀 박관식 계장, 동구 공원녹지와 하인숙 주무관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대전·충청권 공동 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 중인 대청호오백리길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청호오백리길의 소유권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 운영권을 관련 지자체와 담당부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전시 관광산업과 고재봉 계장은 “충청권의 큰 자산인 대청호오백리길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관리운영 이관과 예산 부분은 공원 녹지과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이근희 사무처장은 “해당 지자체와 관련 부서는 물론 마을과 주민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미 이관이 완료된 소프트웨어 부문 외에 시설물 관리 운영권의 이관문제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충북을 포함 광역권 관광 브랜드 성공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며 1월 간담회에서는 충북의 입장을 포함하여 논의를 하기로 했다.

“ 한국경비협회 대전/충남지방협회와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다! ”

- 도시안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



최근 민간차원의 중요도가 제고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연구원장 이창기)과 한국경비협회 대전충남지방협회(회장 박종길), 안전IT융합지원센터(센터장 이현태)가 도시안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에 12일 오후 6시에 대전발전연구원과 한국경비협회 대전/충남지방협회, 안전IT융합지원센터는 도시안전과 안심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따라 도시안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보안환경의 변화로 IT와 유비쿼터스가 통합된 융합 보안시스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IT기술이 접목되는 첨단 보안 경비업의 도입과 발전이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한국경비협회 대전/충남 지방협회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생활안전의 향상에 공헌하고자 하며, 민간차안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으로 안전한 대전만들기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지역발전 리더스 테마특강 개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만들기’ ”



대전발전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공동으로 12월 6일(금)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9차 지역발전 리더스 테마 특강’을 개최하였다.

지역발전 리더스 테마 특강은 창조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지식 함양과 주요 지역발전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선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한 자리로 이번 특강에는 지속가능도시센터박용남 소장의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만들기란 주제로 이루어졌다.

박용남 소장은 꿈의도시 꾸리찌바,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 꾸리찌바 에펠로그 등을 집필하고 수많은 지자체를 위한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역 발전 방안과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시스템 친환경적 공원 녹지 관리,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쓰레기 재활용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한 꾸리찌바 이야기를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꾸리찌바의 참신한 지역발전 정책들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지역발전 리더스 테마 특강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후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최하는 지역순회 형태의 특강이다.

“ 제6차 대전사회적자본 포럼’ 개최 ”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연구기관의 역할과 과제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 사회적자본연구센터(센터장 최길수)에서는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연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보기 위한 대전 사회적 자본포럼을 17일(화) 오후 2시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대전발전연구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박현근(대전대 행정학부)교수의 발제와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평생교육원 관계자, 대전시청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박현근 교수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대전발전연구원의 역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자본 연구기관으로서의 입지 구축,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민주적 시민교육을 위한 지적 기반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으며, 향후대전발전연구원에 기대되는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기반 구축과 실천전략 및 정책의 산파 역할이아말로 대전시 사회적 자본 증진 노력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상훈(충남대학교) 교수는 한 나라의 발전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면서, 현재 OECD 국가 중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신뢰수준으로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발전연구원과 시민 모두가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용(대전평생교육진흥원) 연구조사부장은 사회적 자본의형성은어느 한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관련기관의 협력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관계 사업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노동(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은 축적된 자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끊임없이만들어지고 진화해 가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강조하며, 대전발전연구원이 주축이 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융합을 통해 연구기관이 변화하며 진화해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형복(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의 주된 요소인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 속에서 연구기관과 시민이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해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 중 특히 도시안전을 강조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이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 대전형 사회적자본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 사회적자본 정책의 우선순위 측정지표 개발이 필요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과 (사)한국공공행정학회(회장 윤석경 충남대교수)가 공동기획한 대전형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부터 대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최후택(배재대 교수)의사회로조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조(배재대 교수)가 '사회적 자본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연구'란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길수(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가 대전시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란 주제발제를 했다.

토론자로선 심문보(한서대 교수, 정석환(박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박현근(대전대 교수, 박수경(충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어렵다”면서 “시민들의 만족감은 이제 사회적자본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조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사회 자본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의 의사결정 모형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 자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적 측정지표 개발이라든지 시민배심원제, 시민감사관제 등에 집중 투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제2주제 발표에서는 최길수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란 논문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요소에 대한 증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 및 증진이 필요하고, 규범에 있어서는 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바람직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봉사 단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토론자로 참여한 심문보 교수는 지속적인 정책평가를 위한 후속과제 발굴을 주문했으며, 정석환 박사는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정책의 사업비용에 대한 효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박현근 교수는 대중과 사회 자본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지적했고, 박수경 교수는 대전시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자본 정책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대전사회적자본포럼' 개최 - 총 6회의 포럼을 통한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마련 -



대전발전연구원 사회적자본연구센터에서는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대전사회적자본 포럼' 을 진행하였다. 포럼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시책의 방향과 대안의 마련은 물론 시민의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전시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형성과 시민적 합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대전시 시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적자본은 신뢰와 배려, 소통과 협력, 나눔을 통해 자본의 사회 생산성을 높일 사회 관계망으로 현대민주주의 사회에 문제로 지적되는 시민참여의 쇠퇴와 사회구성원의 민주적 의식 하락,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감소, 시민참여 문화의 쇠퇴와 공동체 신뢰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재형성과 축적에 대한 인식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점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은 '사회적 자본형성 시민참여 사회적 자본 축적'이라는 선순환적인 연계를 위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민주주의 학습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정부, 국회 등의 공적 조직에서 수행하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자체적인 노력을 결합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전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의 특성을 일반화된 형태, 공적신뢰, 사적신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민참여와의

인과성을 계량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제1차 포럼에서는 '정부신뢰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사회적자본과 여성참여'를 주제로 다루었으며, 2차 포럼에는 사회적자본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3차 포럼에서는 마을단위의 사회적자본 형성 전략과 사례, 4차 포럼에서는 '사회적자본 구축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능성'을 주제로 하였다. 5차 포럼에서는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개설을 계기로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정립하고 민간지원기관과 공공기관, 지원기관과 시민조직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 6차 포럼에서는 대전형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연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공공기관, 연구기관, 시민조직 간 신뢰형성 및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적자본연구센터에서는 6번의 포럼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자본 연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 시민교육을 위한 지적 기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축적된 자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진화해가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융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기반 구축과 실천 전략 및 정책의 산파역할로서 대전시 사회적자본 증진에 꾸준히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013년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과제리스트

〈2013년도 기본연구과제〉

과제명	연구자	과제명	연구자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	임성복	대전시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 설정에 관한 연구	정경석
대전 중소기업의 성장요인과 특성분석	김기희	대전시기성주거지의 녹색커뮤니티 재생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염인섭
대전지역 산학연 협력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황혜란	대전시생활도로 교통사고 특성 및 감소방안 연구	이범규
R&D 특구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연구	강영주	지방부도시의 대중교통이용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이재영
대전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태와 개선 방안	김용동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개선에 대한 기초연구	이정범
대전광역시 사회적저본의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길수	대전시온도변화에 관한 기초연구	정환도
대전-기니공화국 ODA 농업개발협력 활성화 방안	윤기석	대전시수환경 배출 오염원조사 방법개선	이재근
성 주류화확산을 위한 평생교육 실태 점검과 개선방안	주혜진	대전광역시 재활폐기물 관리방안	이소라
지역이동센터 운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노동	대전시아생동물 교통사고 현황 기초조사	이은재
도시 인구와 시설규모간 연관성 연구	임병호	도시이미지 활용을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	문경원
대전광역시 도시환경디자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이형복		

〈2013년도 정책연구과제〉

과제명	연구자	과제명	연구자
응능성이 영상거리 경관협정	이형복	학술연구용역 평가지표 개발	황혜란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김홍태	원도심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연구	박종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마련	임병호	대전시환경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정환도
스마트 도심재생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임병호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대전유치를 위한 사전기획 연구	강영주
롯데테마파크 입지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방안	이재영	식장산민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박종진
대전시 자원순환 이행평가 연구	이소라	대전시기성 주거지재생을 위한 정비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염인섭
사회적저본으로 읽는 21세기 도시	문경원	대전시컴팩트시티 정책방향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재영
대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임성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전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이은재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방안 연구	김기희	사회적저본 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최길수
마을자치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최길수	대전인문학연구총서 II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저본의 활용 방안	윤기석
대전의 성인지통계	주혜진	수질오염총량제 오염대상물질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이재근
여성의 일상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주혜진	상수관로 갱생방법의 검토 및 대전시 적용방안	이재근
대전형 여성친화도시 추진 비전과 전략	주혜진	대덕특구 청주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 연구	강영주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실행매뉴얼 개발	주혜진	대전-기니공화국 Forexarah 자매결연 타당성 조사 연구	윤기석
유성구 공동·어은동 지역 인터내셔널 존 조성방안	윤기석	기창한국과학기술인의전당 건립방안 연구	염인섭
드라마 & 액션 영상산업 발전방안	문경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발전방안	김기희
대전지역 중소기업 외식업체 성공요인 및 활성화방안 연구	박종진	소계구역 사업재개를 위한 역사공원 조성방안 연구	정경석
홈스테이 운영방안 조사·연구	박종진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운영 발전방안	박노동
발효퇴비 적정혼합비와 토양오염에 관한 연구	정환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임병호
대전시 음식물쓰레기 이용의 활성화방안	정환도	분권과지방정부 정치역량 제고방안	김용동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임병호	행정수도 이원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방안	김용동
다인승차량(HOV) 활성화방안 연구	이정범	교통부문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방안	이정범
시내버스 노선·형태별 표준연비 산정에 관한 연구	이범규	대전시깃대중 선정 및 보전·활용방안 연구	이은재
대전시 인종 사회적 기업 중사자 조사 연구	강영주	지역단위의 사회적저본 측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최길수
대전 습지비오톱 보호지역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이은재	도시이동성 관점에서의 대전시공간네트워크 구조와 특성	정경석
대전시 시민배심원제 운영방안	윤기석	대덕마인드 정립 및 확산 방안 도출	황혜란
대전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	이소라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어음부도율 등 자금사정만 소폭 악화되었을 뿐 생산, 소비, 고용, 대외거래 등 모두 호조세를 보였음.

전년동월대비로도 생산활동만 위축되었을 뿐, 소비의 호조와 고용의 개선, 활발한 대외거래, 지속적인 저물가 시현 등으로 호조세를 지속함.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였으나, 10월 들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거시지표와 함께 지역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과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 모두 증가하여 지난달의 일시적 요인에 의한 부진을 상당정도 만회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와 같은 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는 있으나,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은 경고하지 않은 모습이며, 미국 재정·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히.

따라서 대전광역시시는 대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함과 아울러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경 기

-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였으나, 10월 들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거시지표와 함께 지역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물 가

-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섬유제품, 전기·가스·수도, 집세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농·축산물의 3개월째 대폭 하락과 석유류, 내구재, 개인서비스 등에서 하락하여 전월보다 0.4% 하락 하였음. 이는 전월의 0.4% 하락에 이어 2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임.

생 산

- 2013년 10월,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는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여 회복세를 보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여 4개월째 부진한 모습임. 향후 생산은 10월의 반등효과가 부정적인 기저로 작용하고, 수출 개선세가 둔화되는 등의 영향을 받아 광공업생산이 다소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금 용

- 2013년 11월, 국내금융시장은 월초 외국인자금이 순유출되었으나, 미국 FED(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청문회 이후 양적완화 유지 기대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였음.

소 비

- 2013년 10월, 전월대비 대형마트 중심의 대형소매점 판매, 전력 사용 등은 감소하였으나, 백화점 판매, 유류, 가스, 연탄 등 에너지 소비, 자동차 판매대수, 농수산물시장 거래량 등은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가스 소비량이 3개월째 지속 감소하고, 백화점 판매액만 감소하였을 뿐, 관찰지표 대부분이 지난달에 이어 증가하였음. 향후 소매판매는 계절의류, 음식료 판매 증가 등으로 더욱 호조세를 보일 전망

대 외 거 래

- 2013년 10월,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함.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은 섬유류, 기계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생활용품,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중심으로 증가함. 전반적으로 수출은 최근 다소 부진했으나 개선되는 모습이고, 수입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음. 무역수지는 2월부터 흑자를 유지한 이후, 10월은 전월보다 흑자폭이 확대되었음.

고 용

- 2013년 10월, 전월대비 취업자는 전월에 이어 증가하고, 실업자는 5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2.1%로 하락함. 전년동월대비로는 취업자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전월에 이어 증가하고 실업자와 실업률도 8개월째 감소·하락함. 고용상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로 모두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실업률이 감소·하락하여 전반적으로 8개월째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